

“영광의 시대는 계속”... ‘슬램덩크’, 개봉 23일만에 박스오피스 1위

이노우에 다케히코 작가의 ‘슬램덩크’ 원작 영화 동명 뮤지컬 영화 ‘영웅’, 누적관객 300만명 돌파

명작으로 통하는 일본 만화 ‘슬램덩크’의 극장판 애니메이션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박스오피스에서 역주행했다. 개봉 23일 만에 1위로 올라섰다. 28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전날 전국 836개 스크린에서 관객 4만1798명을 불러 앉으며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 지난 4일 개봉한 이 애니메이션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개봉 이후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영화로 최근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아바타: 물의 길’, 흥행배우 황정민·현빈을 내세운 ‘교섭’ 등 큰 규모의 영화에 밀려 줄곧 2위를 차지해왔다. 전날까지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누적 관객수는 171만5315명이다. 쉽지는 않겠지만

이 같은 흥행 기세라면 장기간 상영하며 누적관객 200만명 돌파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이노우에 다케히코 작가가 1990~1996년 ‘주간 소년 점프’ 연재한 ‘슬램덩크’가 원작이다. 전 세계 누적 발행 부수가 1억2000만부를 넘겼다. 국내에서는 1991년 장간간 대원씨아이의 ‘소년 점프’에 이듬해부터 연재됐고 단행본은 1500만부 가까이 판매됐다. 열정과 순정의 교본으로 통하며 현 30~40세대의 정서를 지배했다. 특히 주인공 ‘강백호’를 비롯 탁월하게 한국화 된 작명들도 이런 흐름에 보탬이 됐다. 다른 애니메이션과 달리 성인들이 더빙판을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원작 만화의 하이 라이트인 복산고와 ‘전국 최강’ 상왕공고의

대결을 그린다. 특히 강백호가 아닌 가드 ‘송태섭’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원작에 없던 내용을 일부 추가해 향수와 새로움을 동시에 안긴다. 포토 카드, 브로마이드 제공으로 N차 관람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영감님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죠? 나는 지금입니다” 등 명대사들도 다시 회자되고 있다. 원작 만화 역시 다시 인기다. 오리지널판은 물론 신장 재판판, 완전판 프리미엄판 그리고 요약본인 ‘슬램덩크 챔프’ 등 다양한 버전이 서점가를 휩쓸고 있다. 특히 지난 27일 여의도 더현대 서울에 ‘더퍼스트 슬램덩크’ 팝업스토어가 문을 열었는데 인산인해를 이루고, 농구공·농구화 등 농구용품 판매량도 대폭 증가하는 등 오프라인에서도 열기를 이어가고 있어 당분간 흥행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개봉 이후 줄곧 박스오피스 1위를 지켜온 ‘교섭’은 ‘더 퍼스트 슬램덩크’ 뒷심에 밀려 10일 만에 정상의 자리에서 내려왔다. 전날 전국 937개 스크린에서 관객 4만307명을 끌어들이었다. 지금까지 누적 관객수



는 127만4747명이다. 같은 날 박스오피스에서 ‘아바타: 물의 길’(3만4144명)이 3위, 동명 대만 드라마를 영화로 재해석한 ‘상견니’(2만2096명)가 4위, 인공지능(AI) 로봇 사회에 화두를 던지는 SF영화 ‘태간’(1만7978명)이 5위, 설경구·이하나·박소담·박해수 주연의 ‘유령’(1만5596명)이 6위다. 동명 뮤지컬을 스크린에 옮긴 윤제균 감독의 뮤지컬 영화 ‘영웅’은 전날 1만3182명 관객을 끌어들이며 누적 관객수 300만명을 넘기는 뒷심을 발휘했다. 개봉 38 일만의 기록이다. ‘영웅’ 제작비는 약 140억원으로, 손익분기점은 350만명으로 알려졌다.

하이브, 멜론 톱10 70% 지분...멀티레이블 전략 통했다

하이브 레이블즈 4세대 그룹들, 음원 차트 최상위권 장악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투바투), ‘르세라핌(LE SSERAFIM)’, ‘뉴진스(NewJeans)’ 등 하이브 레이블즈의 4세대 그룹들이 국내외 음원·음반 차트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 28일 오후 3시 현재 국내 최대 음원플랫폼 멜론 톱100(24hrs) 차트는 하이브 레이블즈가 장악했다. 1위부터 10위까지 최상위권에 하이브 레이블즈 아티스트의 곡들이 대거 포진했다. 20위까지 살펴봐도 총 12곡이 하이브 레이블즈 소속 가수의 노래다. 10위권의 70%, 20위권의 60%가 하이브 레이블즈 차지다. 우선 뉴진스의 ‘디토(Ditto)’와 ‘오엠지(OMG)’가 나란히 1위, 2위다. 이들의 데뷔곡 ‘하이브 보이(Hype boy)’와 ‘어텐션(Attention)’은 발매된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각각 3위와 8위를 기록하며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다. 지난 27일 미니 5집 ‘이름의 장: 템테이션

(TEMPTATION)’을 들고 돌아온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이번 음반 타이틀곡 ‘슈가 러시 라이드(Sugar Rush Ride)’는 단숨에 5위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K팝 3세대는 물론 K팝 뿐 아니라 세계 판계를 대표하는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이 피쳐링한 그룹 ‘빅뱅’ 멤버 태양의 솔로곡 ‘바이브(VIBE)’가 6위, 지난해 10월 발표된 르세라핌의 ‘안티프래자일(ANTIFRAGILE)’은 7위에 올라 통편하고 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이번 앨범 수록곡들도 음원차트에서 호성적을 거두고 있다. ‘데빌 바이 더 윈도우(Devil by the Window)’가 13위, ‘티니투스(Tinnitus)’(‘둘째가 되고 싶어’)가 16위, ‘네버랜드를 떠나며’가 17위, ‘해피 폴스(Happy Fools)’(feat. Cui Leray)’가 19위다. 게다가 역시 하이브 레이블즈인 코즈(KOZ)엔터테인먼트 소속 래퍼 겸 프로듀서 지코의 엠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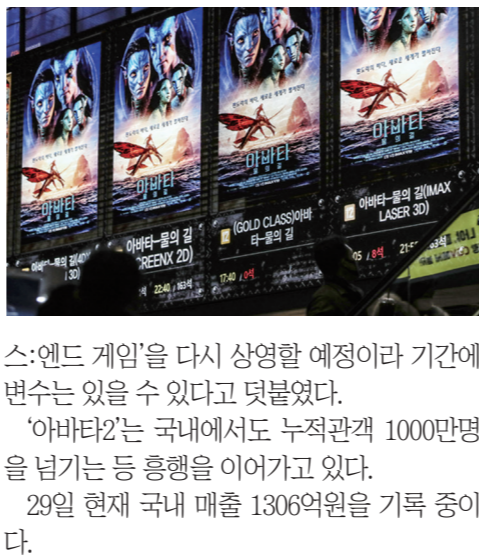
‘스트리트 댄 파이터’ 삽입곡 ‘새봄’은 20위다. 이와 함께 음반 성적도 압도적이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미니 5집은 발매 첫날에만 186만8919장(한티차트 기준) 판매됐다. 전작인 미니 4집 ‘미니소드2 : 서스테이션 차일드(minisode 2: Thursday's Child)’ 음반 총 판매량을 뛰어넘은 숫자다. 최근 일본 데뷔 싱글 ‘피어리스(FEARLESS)’를 발표한 르세라핌은 사흘 연속 오리콘 싱글 랭킹 1위(1월 24~26일 자)다. 앞서 르세라핌은 미니 2집 ‘안티프래자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작년 11월5일 자)에 14위로 진입, K-팝 걸그룹 역사상 최단 기간 내 해당 차트에 입성 기록을 쓰기도 했다. 뉴진스는 첫 싱글 ‘OMG’로 데뷔 6개월 만에 밀리언셀러 반열에 올랐다. 28일 자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HOT) 100’엔 이미 두 곡을 동시에 올리는 기염을 토했다. ‘디토’와 ‘OMG’가 이 차트에서 각각 85위와 91위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 주 해당 차트에 96위로 데뷔했던 ‘디토’는 이번 주에 무려 11계단 뛰어올랐다. 2주 연속 진입이다. 뉴진스는 앞서 데뷔 6개월 만인 지난 주 ‘디토’로 ‘핫 100’에 진입해 이 차트에 역사상 가장 빨리 진입한 K팝 그룹이 됐다. 일주일 만에 해당 차트에 가장 빨리 2곡 이상을 올린 K팝 가수도 됐다. 동시에 두 곡을 올린 속도도 K팝 그룹 중 데뷔 이후 최단 기간이다. 뉴진스는 지난해 8월 데뷔 음반 ‘뉴진스’를 내놓았다. 특히 ‘핫100’에 동시에 2곡 이상을 올린 K팝 그룹은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에 이어 세 번째다. ‘핫100’에 2곡 이상 올린 진입시킨 것도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에 이어 세 번째다. 이처럼 음원·음반 성적이 증명하듯, 하이브의 멀티레이블 전략이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각 레이블이 다양한 색깔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면서 아티스트들의 ‘커리어 하이’는 물론 하이브의 콘텐츠 경쟁력이 한층 강화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제임스 캐머런 ‘아바타2’, ‘스타워즈’ 제치고 전 세계 흥행 4위

1위 ‘아바타’·3위 ‘타이타닉’도 캐머런 작품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영화 ‘아바타: 물의 길’(아바타2)이 전 세계 역대 흥행 순위 4위로 올라섰다. 5위가 된 지 불과 하루 만에 새 기록을 썼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영화 매체 데드라인에 따르면, ‘아바타2’가 전날까지 기록한 전 세계 매출은 20억 7500만 달러(2조5626억원)를 기록했다. 기존 4위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20억 7131만 달러)를 제쳤다. ‘아바타2’는 지난 26일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20억5241만 달러)를 제치고 전 세계 영화 매출액 순위에서 5위를 차지했다. 이번 ‘아바타2’ 순위 상승으로, 캐머런 감독

은 전 세계 영화 매출액 순위 1~4위 내에 자신의 영화 3편을 올려 놓게 됐다. 1위 ‘아바타’(29억2370만 달러), 2위 ‘어벤져스: 엔드 게임’(27억9943만 달러), 3위 ‘타이타닉’(21억9469만 달러)인데 ‘아바타’와 ‘타이타닉’이 그가 만든 영화다. ‘아바타2’가 몇 주 안에 ‘타이타닉’의 매출을 능가할 것이라고 데드라인은 예상했다. 다만 파라마운트가 내달 밸런타인데이(2월 14일)에 맞춰 ‘타이타닉’ 재개봉을 추진 중이다. 디즈니도 마블 스튜디오의 새 영화 ‘엔트맨과 와스프: 퀴텀메이아’ 개봉에 맞춰 ‘어벤져



블랙핑크, 佛 자선콘서트 피날레 무대 장식

프랑스 영부인 브리짓트 마크롱 자선단체 주최



그룹 ‘블랙핑크’가 프랑스 영부인이 연 자선 행사에서 피날레 무대를 장식하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29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블랙핑크는 2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내 르제니스 아레나에서 열린 프랑스 병원재단 갈라 콘서트에 참석했다. 프랑스 영부인 브리짓트 마크롱(Brigitte Macron) 여사가 이사장으로 이끌고 있는 자선단체가 진행한 행사다. 매년 ‘아픈 아이들의 입원 조건 개선’이라는 취지를 갖고 다양한 모금 행사, 봉사 활동 등을 이어가고 있다. 블랙핑크는 K팝 가수로는 처음으로 해당 콘서트에 초청 받았다. 미국 거물 프로듀서 퍼렐 윌리엄스, 영국 팝스타 미카 등에 이어 마지막 순서로 무대에 올라 정규 2집 ‘본 핑크’ 타이틀곡 ‘셧 다운(Shut Down)’과 선공개곡 ‘핑크 베놈(Pink Venom)’을 선보였다. 특히 블랙핑크의 퍼포먼스에 클래식 선율이 더해져 눈길을 끌었다. 프랑스 출신으로 최근 가장 주목 받는 첼리스트 고티에 카푸송(Gautier Capuçon)이 ‘핑크 베놈’ 반주에 힘을 실었다. 스웨덴 출신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다니엘 로자코비치(Daniel Lozakovich)가 ‘셧 다운’ 샘플링 원곡인 파가니니 ‘라 캄파넬라’의 날카로운 바이올린 연주를 그대로 재현했다. 내한한 적도 있는 카푸송과 로자코비치는 국내 클래식 팬들 사이에 잘 알려져 있다. 블랙핑크는 세계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확고하고 있다. 2년 전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 홍보대사(SDG Advocate)로 임명돼 ‘기후 변화 대응’, ‘교육’ 등 총 17가지 주 목표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외에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홍보대사, 각종 공익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에 동참 중이다. 공연 후 마크롱 여사는 “본 행사의 티켓 판매 수익과 이번 콘서트를 위해 모인 기금 전액은 프랑스 병원재단에 기부된다. 전세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블랙핑크가 이와 같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준 것은 매우 환영받을 일”이라며 멤버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마크롱 여사는 블랙핑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기념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그녀는 블랙핑크가 지난해 12월 11~12일(현지시간) 파리 내 아코르 아레나(Accor Arena)에서 연 월드 투어 ‘본 핑크(BORN PINK)’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편 블랙핑크는 최근 약 150만 명을 동원하는 K팝 걸그룹 최대 규모 월드투어를 진행 중이다. 작년 7개 도시 14회차의 북미 공연과 7개 도시 10회차 유럽 투어를 성황리에 마친 이들은 아시아로 투어 중이다. 또 오는 4월 미국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트 페스티벌’, 7월 영국 ‘하이드 파크 브리티시 서머 타임 페스티벌’에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선다.

카라, 8년만에 日 팬미팅...‘전석 매진’

그들 카라가 일본에서 여전한 인기를 증명했다. 28일 소속사 알베더블유 측에 따르면, 카라는 오는 2월 23일 일본 오사카 오릭스 극장, 26일 후쿠오카 기타큐슈 슐레이유홀, 3월 3일 파시피코 요코하마 국립대홀에서 개최되는 팬미팅 약 1만 5000석을 매진시켰다. 이번 팬미팅은 카라가 지난 2015년 일본 도쿄에서 진행한 ‘2015 카밀리아 페스티벌(KAMILIA FESTIVAL)’ 이후 8년 만에 여는 오프라인 팬미팅이다. 카라는 지난달 일본에서 데뷔 15주년 기념 스페셜 앨범 ‘무브 어게인(MOVE AGAIN)’을 발표했다. 타이틀곡 ‘웬 아이 무브(When I Move)’ 일본어 버전 뮤직비디오는 정식 앨범이 발매되기 전 일본 최대 음원 사이트 라인뮤직 뮤직비디오 톱100 실시간 차트 정상에 올랐다. 또 카라는 앨범 발매에 이어 일본 유명 방



송 프로그램인 TV아사히 ‘뮤직 스테이션 울트라 슈퍼 라이브 2022’, 니혼TV ‘스키리’ 발표! 올해 가장 많이 들은 노래 연간 뮤직 어워드 2022, TBS ‘CDTV 라이브! 라이브!’ 연말 특집 등에 잇달아 출연했다. 각 방송 직후 카라 관련 다수 키워드가 전 세계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상위권에 진입하는 등 여전한 화제성을 입증했다. 뉴스